

경제

광주테크노파크 제구실 못한다

지원 기업 고용증가를 전국 최하위 못면해

사업 적정성도 C등급...지역경제 도움안돼

지식경제부 평가

출발한 지 10년 된 광주테크노파크가 지역의 산업기술 및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지식경제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전국 15개 테크노파크의 '2008년 경영실적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테크노파크는 지원 기업의 고용증가가 하위권인데다, 사업 예산 규모도 적어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기업지원서비스 체계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경부 주관으로 이뤄진 이번 평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교수·지역정책전문연구자·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18명으로 이뤄진 경영실적평가단을 구성, ▲종합성과(지원 기업 고용증가율·사업예산규모) ▲인프라구축사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업지원서비스사업 ▲고유사업 ▲발전전략 등 경영전략 및 주요사업으로 나눠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광주테크노파크의 경우 지난해 재정자립도가 76.9%에 불과, 전국 15개 테크노파크 3년 평균(94.4%)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체 사업예산 규모도 166억1천600만원으로 전국 테크노파크 평균 예산(424억2천900만원)에 못 미쳐 지역 기업 지원 위해서는 사업비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는 항목에서는 지원기업들의 성장률이 17.8%로 전국 3년 평균(8.7%)보다 높은 반면, 고용증가율은 3.1% (전국 3년 평균 7.8%)에 그쳤다.

특히 광주테크노파크가 고유 사업으로 추진중인 광주전략사업투자조합의 성과와 적정성 여부가 'C'등급을 받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광산업 등 전략산업과 연관된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취지로 조성된 조합인데, 광주시가 4억원을 출연하는 등 현재 조성 규모가 80억원에 이르지만 고유사업의 적정성이 낮다는 것이다. 평가단은 지난해 7개 업체에 45억원을 투자한 것에 비해 기업의 기술력 및 경쟁력 강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효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평가단은 또 "테크노파크 원장이 클러스터추진단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지 설명이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평가단은 그러나 기업유치실적이 나뉘는 벤처투자자금 지원실적, 인력양성

지원 실적, 입주기업 매출증가율 등은 전국 15개 테크노파크 3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주승용 의원은 "광주테크노파크의 경우 지난 1998년 설립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장기적인 비전경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차별화된 전략을 중심으로 조적역량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테크노파크는 지난 1998년 설립된 뒤 현재 67개 기업(광산업 60%·전기전자 16%·첨단부품소재 11%·의료기기 11% 등)이 입주해 있으며 평균 15명의 직원을 고용해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호주發 '출구전략'...코스피 1,600 붕괴

외국인 8거래일째 '팔자'... 환율 급락 연중 최저점

코스피지수는 6일 호주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글로벌 '출구전략' 본격화 우려 등으로 1,600선마저 내렸다. 원·달러 환율은 1,170원에서 턱걸이를 하며 증가기준으로 연저점을 또 갈아치웠다.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8.46포인트(0.53%) 내린 1,598.44를 기록하며 나흘째 조정을 받았다. 코스피지수가 증가기준으로 1,600선을 밑돈 것은 1,591.85로 마감했던 8월31일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코스닥지수도 3.41포인트(0.68%) 내린 494.42를 기록했다.

코스피지수는 전날 미국 뉴욕증시

의 반등에 힘입어 13.41포인트(0.83%) 오른 1,620.31로 출발해 장중 외국인의 순매수와 4초1천억원(연결 기준)으로 추산된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전망치를 바탕으로 1,626.02까지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오후 들어 호주중앙은행(RBA)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3.0%에서 3.25%로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글로벌 '출구전략' 본격화 우려로 하락 반전해 1,600선마저 내렸다.

특히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8거래일 만에 순매수세를 보이다 호주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전해진

후 순매도로 돌아서 기관과 함께 지수하락을 주도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01억원과 1천180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하락을 주도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3.4원 내린 1,170.3원으로 마감해 연중 저점을 다시 경신했다.

환율은 전날보다 1.10원 내린 1,172.60원으로 출발해 곧바로 1,160원대로 급락한 뒤 1,166.20원까지 저점을 낮췄다. 이후 하락 폭을 반납하며 1,170원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1,170원 선에서 마감했다.

김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뉴 아우디 Q7' 아우디 코리아는 6일 '뉴 아우디 Q7'을 선보였다. 다이내믹한 주행성능과 안락한 승차감을 자랑하는 고성능 SUV 모델이다. 340마력의 4.2 TDI(1억2,210만원)와 240마력의 3.0 TDI(9,250만원) 두 모델이 있다.

"환율 100원 내리면 영업이익 5조 감소"

IT·자동차 업계 비상

최고 원·달러 환율이 1천100원대까지 내린 가운데 환율이 100원 내릴 때마다 정보기술(IT)과 자동차산업의 영업이익은 5조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6일 신영증권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기업이익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 원·달러 환율이 평균 100원 하락하면 주요 IT와 자동차업체의 영업이익 합산액은 4조8천199억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순이익도 2조9천899억 원

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이익 민감도 분석 대상 기업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LG전자,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테크윈,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IT와 자동차 업종 대표 10개 기업이다.

삼성전자는 환율이 100원 내리면 매출액은 8조9천525억원이나 줄어들며,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각각 3조2천358억원과 2조1천572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현대차와 기아차의 영업이익은 각각 3천661억원과 3천675억원이 감소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여성 취업박람회

21일 DJ센터

광주지역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성 취업·창업 박람회'가 오는 2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광주시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150개 기업이 참여해 3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금융·서비스·사무·사회복지 관련 70여개 기업은 현장에 부스를 설치해 구직 여성과 즉석 면접을 통해 직원을 채용한다.

또 박람회장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네일아트, 메이크업, 제과제빵, 피부관리, 천연염색 등 자격증 취득과 직업훈련 정보도 함께 제공하는 한편, 직업 가치관과 직업 선호도에 대한 검사를 해줄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전남신보, 9월 한달 240억 보증 지원

월중 최대 금액

전남신보보증재단은 지난 9월 한 달 동안 월중 최대인 240억 원을 보증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재단 설립 이후 월중 보증공급으로는 가장 많은 금액이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보증지원을 확대한데다 추석을 앞두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보증공급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신보는 올들어 9월 까지 도내

소상공인 등 1만1천774개 업체에 1천686억 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36억 원에 비해 2.3배 증가한 액수다.

김윤옥 전남신보 이사장은 "9월 말 현재 올해 공급목표로 했던 1천800억 원의 94%가량을 달성했다"며 "연말까지 2천억 원 지원을 목표로 불황의 늪으로부터 탈출이 늦어지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최저가 낙찰제 2012년부터 확대

사전심사제도 자율화... 수의계약 단계적 축소

국가가 발주하는 대형 공사에 의무 적용되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제도의 시행 대상과 기준을 앞으로는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 시기는 2012년으로 늦춰졌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

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와 200억원 이상이지만 고난도 공사의 입찰 때 반드시 하는 PQ를 앞으로는 최저가 낙찰

제 대상 공사에 한정해 계속 의무화하고 나머지 공사나 용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대상을 자율 결정키로 했다.

PQ 기준도 지금은 재정부가 항목과 배점 등 심사기준을 일괄적으로 정하지만 앞으로는 발주기관이 계약 특성에 따라 기준을 자율 결정하되, 책임 강화 차원에서 '계약이행의 성

실도' 항목만 필수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대상 공사를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넓히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방안은 경기 상황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2년 늦춰 2012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수의계약제도는 대상이 점차 축소된다. 현재 8개 유형에 38개 사유에 걸친 대상요건을 단순화하고, 걸치지 않아 운용실적이 없는 사유는 폐지한다. 이에 따라 경쟁할 수 있는 사유는 제한경쟁으로 전환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Market data box containing stock prices for KOSPI (1,598.44), KOSDAQ (494.42), and KRW/USD (1,170.30).

Larg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featuring a table of properti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